

2021년도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정기회 2차 회의록

○ 일시 : 2021년 1월 29일(금요일) 14:00 ~ 14:50

○ 장소 : 전북대학교 진수당 2층 대회의실

○ 회순

1. 개회 2. 위원장 개회 선언 3. 안건상정 4. 폐회

○ 참석자 : 양규혁, 최백렬, 유희철, 박성수, 이인재, 이문선, 김지광, 김민성, 이민규
위원

○ 불참자 : 윤영상, 조재영, 홍철운, 이동현, 김중기, 송완상 위원

○ 상정안건

- 대학회계직원 규정 일부개정안

- 2021회계연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예산안

간 사 : 지금부터 2021년도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정기회 2차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
(이경환) 습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안건은 제1안건 「대학회계직원 규정 일부개정안」, 제2안건 「2021회계
연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회의진행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 인사말씀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양규혁)

위원장 : 오늘 재정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15명 중 총 9명이 참석하여 ‘국립대학의 회
(양규혁) 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의사 정
족수에 달했으므로 성원이 되어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 중에서 「대학회계직원 규정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
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학교 측 제안 설명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인사팀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대학회계직원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함.

(장홍수)

위원장 :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
(양규혁) 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면 지금 정원 감축된 것은 자연감소분을 줄인 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감축을 했나요?

인사팀장 : 저희가 현재 대학회계직원 총 355명 재직하고 있고요. 학기 중에 한시적으로
(장홍수) 채용하는 환경관리원 10명도 실제 재직하고 있는 인원으로 계산했을 때 365
명이 재직하고 있고, 추가채용을 감안하여 2명을 줄이는 것입니다.

위원장 : 네 자연감축을 줄이는 거죠.

(양규혁)

위 원 : 이 내용이 지난번에 이문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가요?

(최백렬)

위 원 : 네 우선 정원 전체를 지금 잡아 달라 그래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이문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저희 쪽에서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유형을 한번 살펴봤던 거고 전체적으로 디테일한 유형은 추후에 별도로 잡을 수 있는 배경이니까 지금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본부 측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굉장히 이 규정은 우리 대학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중요한 규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양규혁) 당연히 학내 구성원들 현재 재직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보수라든지 후생복지를 가져다가 증진시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계속 우리가 숫자를 늘려서 이 인원을 다 끌고 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채용 할 때도 정예화 된 인원을 채용해가지고 좋은 보수와 후생복지를 제공하면서 같이 일하는 그런 직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위 원 : 네, 이 내용은 해당되는 구성원의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이인재)

위 원 : 네 예전부터 저희 쪽에서 노력했던 수년간 했던 내용이고요. 정원 자체에서는 현원하
(이문선) 고 크게 문제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직원분들한테 별도의 민원이 있을 내용들은 아닙니다.

위 원 : 알겠습니다.

(이인재)

위 원 : 한 가지 좀 질의가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인원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인원의
(최백렬) 감소되니까 보수 수준이 올라갔을지 모르겠으나 사람이 줄음으로 인해서 업무의 과중에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괜찮을까요?

위 원 : 그래서 그 부분에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연감소를 얘기 드리면서 두 가지를
(이문선) 사전전제로 말씀드렸던 게 본부 업무의 슬림화를 요청 드렸고요. 그리고 인원을 정확하게 잡아놔서 그 안에서 재배치를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건 당연히 선결이 돼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제 호봉제를 자연감소를 시키고 연봉제를 뽑는다는 얘기나 호봉제 쪽이 지금으로서는 당연히 급여체계가 더 높습니다. 그렇게 거기 나가는 금액을 낮은 예산의 연봉제로 뽑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연봉제 쪽에서 최대한 줄 수 있는 만큼 줘서 능력 있는 분들을 더 채용을 한다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 원 : 네, 알겠습니다.

(최백렬)

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 안전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
(양규혁) 로 이상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전에 대해 의원 분들 동의하여 주신다면 거수로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들 : 동의합니다.

위원장 : 네 그러면 먼저 상정된 안전에 대하여 찬성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양규혁) 원이 찬성하셨습니다. 반대 위원 없으신거죠? 상정된 안전에 대해서 찬성8분, 반대
0표, 기권0표로 본 안전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지난 정기회에서 상정되었던 21회계연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예산
안전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전에 대하여 학교 측 제안 설명자께서
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2021회계연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예산안」에 대한
(김명숙) 설명을 합니다.

위원장 : 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전에 대하여 질의
(양규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드릴까요? 대충 예산을 보면 수입대체경비가 여기저기 많이 있는
데요. 보면 대개 거기에서 일종의 간접비로 떼는 것들이 공공요금성으로 해서
간접비를 많이 징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일정비율로 좀 고
정화시키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요?

재무과장 : 수입대체경비는 요율이 일정부분 정해져있습니다. 입시경비 같은 경우는 딱 15%를
(김명숙) 떼도록 돼 있고요. 다른 곳들은 보통 20~30%정도인데 기관장이 10%범위 내에서 조
정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요금만 꼭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비를 떼서 저희가 시설사업에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 제가 좀 여쭙고자 싶었던 것은 우리 학교에서 하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양규혁) 수입대체경비 일종의 독립채산제같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규제 같은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범대에서 운영하는 교원연수과정 그거는 수입대체경비로 해가지고 독립채
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또 특수대학원 같은 것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특수대
학원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훨씬 더 많은 학생을 모집해가지고 더 학교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되지 않
으니까 교수들이 관심 없이 수업만 하고 보내는 것 같아서요.

재무과장 : 수입대체경비라는 것은 지정이 돼 있고요. 수입대체는 이제 1:1경비라고 보통 말을
(김명숙) 하는데 특정 어떤 용역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세입이 들어오면 그거에 의해서 지출
하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특수대학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해져있지
않고 저희 세입으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부 지침입니다. 물론 건의를 해서 나
중에 지침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 원 : 계약학과는 수입대체경비로 못쓰나요?

(최백렬)

재무과장 : 계약학과는 산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학 회계의 재원으로 잡혀있지 않습니
(김명숙) 다.

위 원 : 수입대체경비는 쉽게 생각해서 대학의 본질 기능이 아닌 부분을 뜻하고 대학원은
(박성수) 대학의 일종이기 때문에 본질기능에 해당되는 거고요. 평생교육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수입과 지출을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위 원 : 낮을 때에는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장 : 학교운영에 보다보면은 어떤 분야는 수입대체경비로 수입으로 운영하기 때문
(양규혁) 에 강의료라든지 또는 그런 것들을 많이 줄 수 있는데 반해서 어떤 분야는 초과시간밖에 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강의 담당하는 교수들은 강의 많은 쪽을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 더 관심 없 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그런 조정이 필요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 원 : 수입대체경비에 대해서 저도 질문하나 드리면 지난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최백렬) 했지만 예산을 절감하고 또는 수입대체기관으로부터의 학교 시설사용료로 재무과에서 재정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시겠지만 수입대체경비 기관의 활성화를 통해서 수입을 추가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 수입대체경비기관에 시설사용료가 지금 기관별 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생교육원이랄지, 언어교육원 같 은 데에서는 일주일 내내 씩니다. 전기세도 쓰고 물세도 쓰고 시설 다 쓰고 제가 예전에 담당했던 최고위과정은 하루도 안 씩니다. 근데 거기서도 대체 경비에서 시설사용료를 똑같이 20%씩 떠어요. 근데 그건 좀 불합리하지 않 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 원 : 단순히 시설사용료만 떠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가 본질기능 외적인 부분에
(박성수) 서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이익금을 대주주가 되어 몇 프로 떼 갑 니다. 그런 정책적 결정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 원 : 몇 프로 떼더라도 통일성 있게 제가 볼 때는 어디서 많이 떼고 조금 떼대
(최백렬) 가 있더라고요.

위 원 : 영업여권이 좋은데는 좀 할 수도 있고 좀 열악한데는 조금 공공성이 강한
(박성수) 그런데는 낮고 그렇게 관례적으로 쪽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 원 : 다른 질문 하나 총괄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대
(최백렬) 학에서 할 일을 하는데 사무국이나 재무과에서 또는 기획처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각 부서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참 어려움이 많이 봉착 될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만 이걸 이미 내부적으로 다 토의가 거쳤고 총장님의 재가를 받은 안이다라 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전체적인 학교운영을 학교에 서도 살림이 어렵겠지만 각 개별 부서별로 봤을 때는 그 어려움이 더 크다. 크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조금 알아주시고 추후에라도 추경에서 라도 이런 문제점 각 부서 단과대학도 마찬가지로 제가 속한 교무처 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좀 보완해 주십사 추경 때 약속을 해주 십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여쭙보면 사업별 예산 항목들 쪽 보면 예를 들면 교원역량강화 같은 경우에는 1억8천8백정도가 감이 됐어요. 근데 직원역량강화는 동결이고 직원인사관리도 동결인데 교원인사관리는 좀 늘긴 했습니다. 작년 부담금 증가로 인해서 그리고 직원단체관리는 동결인데


위 원 : 교원단체관리는 또 감이고 16,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이게 우
(최백렬) 리 교무처에서 봤을 때 조금 교원들의 분야에서는 감하고 직원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동결이고 해서 같이 감하시던지 아니면 교원도 좀 배려를 해주시던지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 원 : 규모의 차이가 직원들이 더 적습니다.

(박성수)

위 원 : 아니 직원역량강화사업에 5억9백 그대로 가고 교원역량강화는 5억5천에서 3억6천으
(최백렬) 로 1억8천8백이 감했어요. 근데 그중에서 특히나 조교의 글로벌역량강화사업이 천6
백정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도 0원을 준다. 이 자리에 조교 대표가 없어서 망정
이지 조교 선생님이 이 자리에 왔으면은 그 분들 이것 알면 가만히 있을까 싶은데
요.

위 원 : 교원부분에서 교수님들이 교육훈련은 받지 않지 않습니까? 직원들은 교육훈련을 받
(박성수) 아야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승진을 하려거나 하려면 1년에 의무적으로 100시간, 200
시간 받기 때문에 교육훈련을 받기 때문에 직원들의 교육훈련비는 이렇게 있는 거
고요. 교원부분에서는 조교하고 교수님들인데 교수님들이 훈련이나 이런 것을 하지
는 않지 않습니까?

위 원 : 그 국외연구교수 인원수가 학기 당 3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15명으로 줄어요. 그
(최백렬) 건 제가 지금 이 내용을 교수님들이 알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총장
님에게도 말씀드렸고 국장님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후에 추경에서라도 어떻
게든지 해보시겠다. 인원수를 안 줄이도록 노력해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
서 이 자리에서 그것 좀 배려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4/1

위 원 : 저도 아까 조교대표가 조교예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인재) 평의회 소속으로 대학평의원예산이 금년에는 0으로 잠혀있더라고요. 재무과장님에게
말씀드렸고 추경에서 잡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그 약속으로 알고 크게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재정위원으로 있지만 1년 동안 더하기는 했습
니다. 두 번째 참여하는 건데요. 예산 심의에 대해서 크게 안목이 넓진 않아서 제가
아는 분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어떻게 알았냐면 예를 들어
서 어디 정자를 짓는 다는가, 조경을 한다든가 주변에 환경이 굳이 필요 없는 경우
에 예를 들어서 어디에 나무를 깎다든가 데크를 만든다든가 환경개선용으로 쓰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 연구실이나 강의실에 들어가 보면 열악한 경우
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왜 돈을 저런데 쓰지? 여기에 쓰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런 문제, 그런 의문에 대해서는 좀 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미리 신청해서 그것으로만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알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비합리적, 비실용적으로 쓰이는 것은
맞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학교가 재정을 받아서 조금
더 자율적으로 어디가 더 급한지를 어디가 더 효율적인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학이 갖춰야 될 대학이 가져야 될 그런 지위 같습니
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고요. 제가 최근에 경험한 바로 말씀드
리면

위 원 : 연구실 연구환경개선비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게 학교교육여건개선비에
(이인재) 해당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270억에서 362억으로 92억 정도로 늘었는데요.

재무과장 : 저희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숙)

위 원 : 그니까 연구실연구환경개선비, 연구안전개선비라고 해서 후드라던가 연구실안전
(이인재) 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기를 사주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
까?

재무과장 : 안전 예산은 저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거든요.

(김명숙)

위 원 :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구입하는데 있어서 저도 한 3개정도를 신청해
(이인재) 서 받았는데요. 구입하는데 있어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얼마나 싼지는 모르겠으
나 사용목적에 대해서 지출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사실은 아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용목적에 맞도
록 기기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쓰는 사람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으면 좀
더 효율적인 지출이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무과장 : 그거는 제가 안전기기, 시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 원 : 예전에도 제가 비슷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학과에서
(이인재) 너희들 복사기 필요한 사람 손들어 이렇게 신청을 해서 주는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매년 5년마다 이렇게 바뀌게 되어있는데 기존에 쓸 수 있는 충분히 워킹하
는 평선하는 복사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주니까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서 작용하는 복사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밀려서 안 쓰이게 되는 그런류의
제 문제의식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연구실안전환경개선비에 대해서 과도하게
많은지 목적에 부합할 정도 이상의 지출을 하는 경우 그니까 옵션이라든가 기기
자체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실제로 쓰는 사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면 그런 엑스트라 비용을 좀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 네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해주시죠.

(양규혁)

위 원 : 저도 아까 주요사업에 대해서 추경 때 약속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어
(박성수) 디서 받아야 되는지 지금 국제컨벤션 25억을 본예산에 미리 안 넣었어요. 예산이
너무 어려워서 만약 넣었다면 예산상황은 더 어려워졌을 겁니다. 사무국이 양보
를 한건대요. 추경 때 2021년에 확보가 안 되면 저희도 소송당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디다 약속을 받아야 하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희도 역시 마찬가
지입니다.

재무과장 : 일단 불용액이 조사되고 1차 추경 때 잘 논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장 : 저도 이렇게 예산을 봐서 느낀 점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서 예산이 절약이 되
(양규혁) 더라도 그것을 저금통장에 넣어놓지 못하고 다른 부분에 자꾸 배분을 하다보면 이
게 일종의 기득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약된 예산은 유연하게 쓸 수 있
는 그런 쪽으로 임시로 사실 기업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대학이다 보니까
국가기관이다보니까 그런 것을 못하는 것 같아요. 좀 세이브 할 수 있는 그런 저장
소가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우리 국장님, 재무과장님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 원 : 저희는 단년도 회계의 원칙이라.....,

(박성수)

위원장 : 그러니까요.

(양규혁)

위 원 : 한번만 더 여쭙보면요. 자체수입금에서 수업료가 805억이죠?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
(최백렬) 산을 100만 원 정도를 추가하고 해봤는데 지금 입학처에서 알기로 지금 3.17:1,
3.14:1인가요? 근데 2:1이 안 되는 과도 있고 2점 몇 대 일되는 과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미달입니다.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대로 그럼 충원이 작년보다 안 될 겁니
다. 제가 볼 때는 이 수입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작년에 편입학을 좀 더 해서 우리
학생들 등록금 반환해서 일부를 부담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론상으로 봤을 때 제가
봐서도 수입에서도 이거 좀 마이너스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
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 사항인가 싶습니다.

위 원 : 지금도 그런 대학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느 대학은 수업료 자체를 세입을 못받을
(박성수) 줄 알면서도 부풀려서 예산을 짜버립니다. 마이너스 예산을 짰 대학이 있었어요. 그
래가지고 나중에 인제 이런저런 돈으로 메꿔가지고 결국엔 연말에는 맞췄는데요. 이
것을 지금 세입자체를 감한상태에서 가면 10억만 줄여도 예산을 짤 수가 없는 거죠.
전년도 수준으로 짜놓고 실제 편입학생, 외국 유학생 이런거 하다보면 요게 재무과
의 정말 노하우 기술인데요. 이걸 예측을 못하면 핑크가 나니까 항상 이게 남아야
됩니다. 제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이것보다는 많이 건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
문에 이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마이너스는 안나는 선에서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
이 듭니다.

위 원 : 입학처한테 잘 해줘야 됩니다.

(최백렬)

위 원 :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학부생 등록금만 맞추게 아니고 외국인 유학생 여러 가지를
(박성수) 다 그 다음에 어떤 해는 복학생이 많은 해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세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플러스가 되게끔 또 어떤 때는 미등록 휴학생이 많아 버리면은 이제 핑크가
나는대요. 말씀하신대로 입학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중도에 다른 학교로 옮겨가는 애
들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그래서 이제 좀 비인기 사립대학들은 상당한 재정이 중간
에 휘청거리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근데 아마 저희는 이번 2021년까지는 균형을 맞
추는 예산을 짜지 않았을까?

재무과장 :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학생이 많이 줄어서 등록금수입이 마이너스가 될
(김명숙)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산금액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아까 외국인
신입생 등록을 보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예년에 비해서 몇 명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입이 감소할까봐 많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
도는 맞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 우리 차에만 범퍼가 있는게 아니고 예산에도 범퍼가 있어서 그걸 우리 재무과장님
(양규혁) 이 이제 노하우를 살려가지고 하실 수밖에 없는 문제 같고요. 저번 회의에서 나왔던
문제 하난데 외국인 학생들을 상과대학에서 거의 절반을 떨어뜨렸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상대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렇더니 역시 외국인 학생 문제는 대학원과 학
부로 나뉘는데요. 대학원은 지도교수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 그 점은 다 알고 있는
데 또 학부는 한국인 학생들이 특히 같이 수업을 받는 한국인 학생들이 팀 프로젝
트 같은 것을 할 때 외국인 학생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그런 문제 때문에 싫어하
고 강의에도 지장이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상과대학에서 두 과가 주로 많이 외국
인 학생들이 가는데 두 과에서 비율을 좀 조정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해서 그
래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는 회계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40명 수업을 해도 2~3명밖에 없거든요? 어려워서 잘 안하는데 이제 또 학생들
이 선호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는 너무 많이 몰려서 이제 다음 국제처장
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조금 과로 골고루 이렇게 외국인 학생들이
갈 수 있게 운영해야지 않겠나?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가 자체수입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정원 외 학생을 받는 게 ~~모두가~~
텐데 그런 것은 아마 본부에서 많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학생 대표 외국인 학생 그런 문제 있으신가요?

위 원 : 상과대학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인식이 그렇
(김지광) 게 좋은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의
견을 들어봤을 때도 교내 학생들이 적응할 때 많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대학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적응이 많이 어려운 상황
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한국인 학생들에 대한 인식개선은 저희가 해결해
야 될 문제이지만 외국인 학생들이 적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지원이 많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국제협력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오아시스에 관련되어서 지금 개편되고 있는 영문법버전 등에 있어서도 예산문
제로 약간 제한이 많이 있다고 담당부서에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추
후에 반영을 해주시면은 저희 학생들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우리 수업료 수입이 800억 정도 되고 외국인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가 80억 정도 된
(양규혁) 다고 하니까 거의 10%가까운 부담을 외국인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도 좀 생
각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면은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들 : 네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분들이 동의하여 주신다면 거수로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양규혁) 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8분 전원 위원분이 찬성표시하여 주셨습니다. 반대위원 없으시고 기권위원도 없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찬성9표, 반대9표, 기권0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선출하겠습니다. 본 회의를 마치기 전에 기타 사항 협의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거 회의록 서명을 출석 위원 전원이 하여야 하나 단서조항에서 출석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회의록에 대표로 간(間)서명할 수 있기에 대표자 3인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1년도 재정위원회 1차 정기회의시에는 운영상, 이인재, 이문선 위원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간(間)서명하실 대표 위원 3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최백렬, 이인재, 이문선 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간(間)서명하실 대표위원으로 최백렬 위원님, 이인재 위원님, 이문선
(양규혁) 위원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인사말씀

(양규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1년도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정기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
(양규혁) 합니다. (의사봉 3타)

간 사 : 이상으로 2021년도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정기회 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
(이경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 : 2021. 2. 5.(금)

위원장 :

양 규 혁



간 사 :

이 경 환



기 록 자 :

김 선 응

김선응